



[교역동향] 中, 호주 및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입 중단

- 관세청 공식화 없어...농축산물 수출 정상 진행



중국이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축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류구매연합회(CFLP) 산하 식품원료공급망협회는 유제품, 육류, 농산물 및 와인을 포함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지한 바 있다. 전면 금지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세청이 이를 공식화한 바 없으나 관세 및 물류 관련 기관에 통보되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현재 농축산물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소식이 사실이라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호주는 물론 뉴질랜드와의 교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vino-joy.com, 8월 15일 >

[낙농경영] 뉴질랜드 낙농업계, 대규모 홍수에 피해 막심

- 목장 침수, 집유 중단 등 홍수 여파 심각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도 100년 만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며 낙농업계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질랜드 최대 유가공 협동조합인 폰테라에 따르면, 남섬과 북섬 북단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유실됨에 따라 원유 집유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장이 침수되면서 착유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젖소들의 분만 시기를 앞두고 목장 시설에도 손실을 입히며 인근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관계자는 홍수 피해 파악 및 조속한 원유 집유 재개를 위해 농가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ruralnewsgroup.co.nz, 8월 1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